

2019년 7월 19일



##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

요니 코스키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흑백논리인가요 – 내가 예수아를 알게 되기 전에는 악했지만 지금은 선한 것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엡 5:8).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며 ...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의 첫 몇 구절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의 가족이 예수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나중입니다. 이것은 악한 행위가 갑자기 선한 행위가 되는 패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과분

신학자들이 ‘선행적 은총’이라고도 부르는 일반 은총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아무 공로 없어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후한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유는 모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심이 거부되거나 억제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정도 양심이라는 형태를 취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끔 악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도 완전히 성화되기 전까지는 가끔 그렇습니다.

어떤 부족이 복음을 듣기 전에도 그 부족 사람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고대 문화의 신화나 전설에서, 특히 나무에서 죽어 어쨌든 그 민족을 구하는 ‘메시아’ 같은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두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구원받기도 훨씬 전에 예슈아를 영접하고 예슈아의 꿈에 반응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폭풍 속에 있는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은 왜 요나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청했을까요? (**욥 1:6**) 왜냐하면 선원들은 그들 자신의 신들의 무력함과 요나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욥 1장**)

그래서 일반 은총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1.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지 않고, 오히려 지내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경험을 축적하고 반응에 대한 선택을 소개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아직 구원 받지 않는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시각을 갖게 도와주고 덜 잘난 체하며 더 적절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릇되게 비교하면서 자고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3. 갓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시각을 갖게 해주고 제자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4. 혼란스럽게 '영적인' / '영적이지 않은' 혹은 '세속적인' / '성스러운'으로 구분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5. 저희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회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6. 기독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7.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

대니얼 저스터는 본인이 목사로서  
공동체원들에게 언제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를 탈진시켰고 그의  
가족들을 뒷전에 두게 했습니다.  
가족과 사역 사이에 균형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를 클릭하세요.